

# 솔직발랄한 성차별 경험담과 극복법



김연우 작 '어린이집 가방'.



에프모양선인장 작 '페미니스트의 테이블'.



백희준 작 '포장-Package'.

## 광주여성재단·청년문화허브 27일~10월 31일 '페미니스트의 물건'展

### #페미니스트의 물건1-연필.

연필꽃이 핀 수 많은 연필,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물건이지만 나에게서는 바라볼수록 마음이 아픈 물건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규모의 건설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배운 것은 커피를 타는 것, 문서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조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위풍당당하게 입사를 했던 나는 지금 없다. 이곳에서 여성은 직함이 없다. 여성은 모두 '여직원'이라는 단어로 통일된다. (느리)

### #페미니스트의 물건2-어린이집 가방.

나는 남성이지만 아이들과 노는 게 즐겁고 아이들을 대할 때는 말투와 행동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아이들도 나를 잘 따른다. 그래서 나는 한때 어린이집, 유치원 남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남교사를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낙담했다. 남교사가 여자아이를 안아주고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다. (연우)

청년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기획전 '페미니스트의 물건'이 27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광주여성재단 8층에서 열린다.

27일 오후 2시에 열린 전시 개막전에서는 '페미니스트의 테이블'이란 문패를 내걸고 전시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발칙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행사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1시 전시관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청년문화허브가 주관하는 이 전시는 페미니즘(Feminism)에 대한 편견을 성찰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과 예술·문화계 내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페미니즘은 유행처럼 많은 관심과 논의를 낳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낯선 이론으로 여겨지거나 오해와 편견의 산물이 되고

## 페미니즘 관련 사연 100여건 받아 세차례 워크숍...상징 물건 작품화 관람객들 즉석 의견 개진 코너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문화허브에서 활동 중인 20~30대 청년여성기획자 3명이 뭉쳤다. 박명지(31)·김꽃비(28)·차지원(22)씨는 이번 전시의 기획과 제작을 맡아 수차례에 걸쳐 지역 청년과 작가 등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이들의 사연을 모으고, 워크숍 등 공론의 장을 만들어 생각의 차이를 공유하게 했다.

특히 '성차별을 겪은 경험', '성 평등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공모해 100여 건의 사연을 받았다. 참여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건설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함이 있음에도 '여직원'으로 불리는 경험',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 등의 글을 익명으로 남겼다.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워크숍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들로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8층 '페미니스트의 물건'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시관을 채웠다. 모집한 사연을 상징하는 '물건'을 시각적으로 작품화해 전시하는가 하면, 워크숍 등에서 나온 페미니즘 관련 대화를 녹화해 전시 현장에서 상영한다.

전시회에는 '페미니스트의 테이블', '포장', 'mirroring object' 등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참여작가 김서영(25)씨는 '과정'이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김씨는 전시 관객에게 '차별', '불평등', '혐오', '폭력', '억압' 등 다섯 개의 추상명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게 한 뒤 휴지통에 버리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누구든지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그린 그림을 버리는 행위는 버려야 할 기존의 성차별과 페미니즘적 관점을 의미한다.

또 다른 참여작가 백희준(29)씨는 '포장-package'라는 작품을 통해 '여기자'로 일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어떠한 사건 또는 현상을 '포장'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성이 편견된 대부분을 쥐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를 지적했다.

전시회에는 관객이 전시현장에서 즉석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또 전시기간 동안 페미니즘과 관련된 사연을 계속 접수해 소개할 계획이다. 사연은 인터넷 주소창에 nave.me/xU1rw28R(네이버 폼)을 입력해 작성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5.

##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가야금 소리여행'

### '취선금의소리연주단' 초청 공연...내일 서석당

맑고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일상설공연으로 '취선금의소리연주단(대표 황승욱)'을 초청해 '소리여행, 여로(旅路)'를 선보인다.

'취선금의소리연주단'은 가야금 병창의 계승 발전을 위해 25현금, 판소리, 민요,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등 맑고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서고 있는 공연예술단체다.

첫 무대는 '흥타령' '사철가' 가야금병창으로

문을 열며 이어 '심청가' 중 심봉사가 황성 맹인잔치에 가는 길에 뺨덩이네를 잃고 황성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국 팔도 민요를 25현 가야금 연주로 색다르게 들려주고, '흥보가'와 '적벽가' 주요 대목을 가야금병창으로 편곡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후반부에는 '아리랑'과 민요풍의 곡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월삼경', '호남가' '동백타령'이 공연된다. 문의 062-232-1595.

첫 무대는 '흥타령' '사철가' 가야금병창으로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취선금의소리연주단'

##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서 청동 사리병 발견

### 문화재청 제작 연대 규명 나서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에서 사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병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분석을 통해 삼층석탑의 제작 연대 등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5일 삼층석탑 해체보수 과정에서 높이 22cm, 최대 너비 11cm의 청동병을 발견했다. 청동병은 탑신석 하부에서 나왔으며 사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병을 수습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엑스레이(X-ray)와 CT(컴퓨터 단층촬영) 촬영 등 비파괴 조사와 부식물 제거·안정화 처리 등 각종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다.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월남사 터에 남아 있는 8m 가량의 석탑으로 백제계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석탑의 제작 연대를 두고 후삼국기인 견훤 대로 보는 견해와 고려 무신정권기, 고려 후기 보는 견해가 대립해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학정서예연구원 세계청소년서예대전...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접수

학정서예연구원이 제36회 세계청소년서예대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서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열고 있는 서예대전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 범위는 19세 미만 청소년(해외 포함)으로 국·한문 관계 없이 출품하면 된다.

표구비를 포함한 참가 경비는 없으며 오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학정서예연구원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초·중·고 각 1명)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씩이, 우수상(총 4명)에게는 전남도·광주시 교육감상과 장학금 50만원씩이 수여된다. 심사는 오는 9월 3일 열리며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상자를 발표한다.

입상작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급남로 4가 지하철역 메트로갤러리에서 열린다. www.hagjeong.co.kr. 문의 062-222-41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jncbms.co.kr

##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

# 사진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기쁨하는 기회이다.**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내일의 시간을 기쁨하는 기회이다.**

최종 편집을 맡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은 힘이 있다.

그렇게 나의 삶에도 문화의 힘이 되어 준다.

이 책에 수록된 문화역사의 공간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역사 시간에 들었거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봤을 직한 장소들이다. 거기에는 절절한 아름다움과 통탄의 역사가 스며있기도 했고, 더러는 우리 문화의 진미(眞美)가 오롯이 깃들여 있기도 했다. 책에는 기자의 시각, 작가적 상상력, 인문학자의 사유가 투영돼 있어 역사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가 특유의 감성적 문체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본 현장감이 겹쳐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직접 발품을 팔아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는 힘이 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의미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 2000년 전남일보 신춘 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2006년 소설 시대 신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인문학자이다.

저자 **박성천** | 정가 18,000원 | 224쪽 | 크라운판 | 소프트 | 윌컬러 | 제이앤씨 출판사